

전주의 지속가능 생태도시 해법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기후변화 대응 ·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

전주시의 본격적인 나무 심기가 시작됐다. 전주시는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해법으로 공원과 호수, 인도와 공터, 학교, 건물의 옥상과 벽면, 산업단지 유휴 공간 등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나무를 심고 점·선·면용 이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녹지축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시민나무 식재행사’가 13일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 어린이가 나무에 소원지를 달고 있다.

▲도시 속 녹색 숲, 미세먼지 해결사
녹지가 열기를 낮추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1ha의 도시 숲에서 연간 168k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황사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봄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도심보다 25.6%, 초미세먼지 농도는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숲속에서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주시의 열섬현상

을 도시 숲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는 이미 20년 전부터 도시에 나무를 심으면서 악명을 떨쳐냈다.

**나뭇잎이 미세먼지 흡수
까지 · 나무줄기가 차단
대구시, 열섬현상 해결 위해
20년전부터 도시에 나무 심어
전주시, 1000만 그루 식재기로**

▲나무심기, 지속가능한 전주 만들기
전주시는 민선7기 들어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올 상반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통해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했다. 맑은 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에서는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통해 ‘맑은공기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끌어 낸다는 물론 전주시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가 민선7기 김승수 시장의 첫 결재사업이 됨으로 추진단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정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공원과 호수, 인도와 공터, 학교, 건물의 옥상과 벽면, 산업단지 유휴 공간 등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오는 2026까지 8개년 동안 공공분야 600만 그루, 민간분야 400만 그루 등 총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사람·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간 도시패러다임의 선진도시 전주시가 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내놓은 시민과 함께 녹색인프라, 그린인프라를 구축하는 ‘맑은 공기 도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은 또 한 번 생태도시 선진도벨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는 녹색인프라와 그린인프라이며,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는 천만그루 나무와 꽃으로 열섬과 미세먼지 저감, 걷고 싶은 생태도시와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주도 정책”이라며 “도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울 때 시민들은 도시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 만큼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자체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한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 개최

전주시보건소는 13일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이 새로 위촉한 18명의 위원 중 전주기전대학 총학생회장 양 원 위원에게 청년 대표로 신규 위촉장을 수여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각계 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및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 향후 2년간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활동을 한다.

심의 위원들은 제7기 계획안 보고를 받은 후 20여명의 심의 위원과 전주시 동네복지 사업 담당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4년간 추진하는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한 토론을 했다.

이날 심의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제7기 계획안 보고를 받은 후, “전주시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실제 위주가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향으로 해마다 발전하는 ‘살아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효철 기자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

전주시가 직원들의 언론홍보 역량을 높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시청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청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언론의 이해와 보도사진 촬영기법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시는 향후에도 공무원들의 홍보능력 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인권감수성 향상 특강

전주시가 국·소별 인권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시와 전주시 인권센터는 13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인권담당자 17명과 함께 전주시 인권정책 추진상황과 현안을 공유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지영 전주시 인권센터 응호관은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이 편리한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전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시책이나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를 빛낸 참 예술인을 찾습니다’

시, 23일까지 예술상 10개 부문 수상후보자 접수

전주시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해온 예술인들을 발굴해 시상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주시 예술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로써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상으로, 그동안 전주를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 만드는데 기여해온 총 180명의 문화예술인이 이상을 받았다. 접수부문은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으로, 시는 각 부문별 1명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후보자는 공고일(10월 30일)기

준으로 현재 전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전주시 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 또, 각 부문별 문화예술 단체의 장 또는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는 접수된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올 연말 진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소리지존 퓨전타악 ‘어진별곡’ 성료

소리지존 퓨전타악퍼포먼스는 지난 10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퓨전타악퍼포먼스 어진별곡(喜怒哀樂)공연이 관람객들로 공연장을 가득 매운채 성황리에 펼쳐졌다고 13일 밝혔다.

주부성 백성들의 사람살이를 타악퍼포먼스에 담았다. 13일 이미정 소리지존 대표에 따르면, 퓨전타악퍼포먼스 어진별곡은 기존의 퍼포먼스 형식의 타악공연의 형식을 벗어나 극적 요소를 입혀 새로운 공연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특히, 태조어진 봉안행렬과 남천교 아래 빨래터 아낙들의 소소한 일탈을

그려낸 희(喜), 왜란 발발 시 어진을 몸 바쳐 지킨 이들의 모습을 장렬하고 화려하게 그려낸 노(怒), 적의 칼날 아래 스러진 하얀 넋들을 위로하는 애(哀), 다시 평화를 찾고 소실된 경기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그린 락(樂)의 네 주제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새로운 도전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질 높은 공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선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옮겨지는 수능 시험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3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교육지원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종합상황실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수험생들이 치를 시험지를 안전하게 옮기고 있다.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ATV / 머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터 지역 취득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내대외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취득